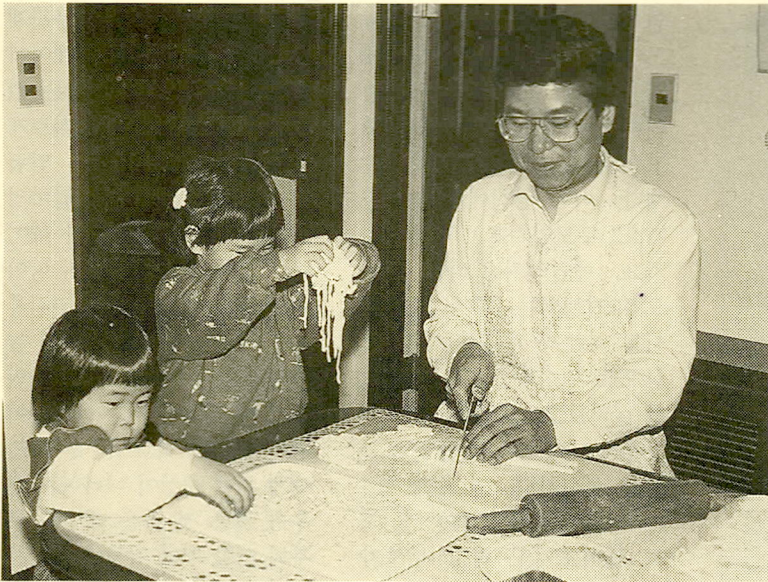


신세대 부부들의 세대 풍속도

평등은 경제서부터, '사람 따로 주머니 따로' 부부는다

가장 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권위 중심에서 협조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정의 모습



▲직장여성의 증가는 생활문화의 다변화를 불러옴과 동시에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각자 재산을 각자가 관리하는 따로별이 부부가 늘고 있다.

한다. 만일 이혼할 경우에는 각자가 마련한 것은 각자가 가져간다는 것을 못박아 둔 것도 이들 부부의 특징이다.

“결혼전에 이혼까지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해 그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냐”고 김 씨는 되묻는다.

남편 실직 때도 경제적 보조는 없어

결혼 생활 7년째인 강상수(36. 관악구 신림동) 씨도 마찬가지 경우다. 강 씨의 아내는 교사. 강 씨는 전직 잡지사 기자다. 그는 몇달 전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실직했지만 아직까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꼬박 꼬박 내놓고 있다. 자신의 주머니에 먼지가 풀풀 날리더라도 계약을 위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는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기고를 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돈이 없어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했지만 그런 사정을 아내에게 털어놓지는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사정이 아니라 가족 공동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 씨는 “따로별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남성들에게는 일종의 해방된 제도”라고 말한다. 생계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굴레를 지고 있는 남성들의 경우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는데 자신의 경우는 최소한의 임무 수행만 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해도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 이란다.

물론 이 과정에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아내,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가족의 모임이나 친척들의 모임에도 항상 참석해야 한다. 생활비를 내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고 이런 과정이 계속 연장된다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 강 씨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묵계다.

이들은 공동 생활비 외에 가족 명의로 저축을 하나 더 들고 있다. 비상시에 대비해 공동 비상금을 마련해 놓자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따로별이 부부들은 한결같

이 “서로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은 정신적 부담도 주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정신적 부담-애정이라는 등식으로 따로별이 부부들의 빠른 계산 풍속을 비난하지만 이들은 “애정과 정신적 부담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사회학자는 “이런 따로별

이 현상은 유교 윤리에 뿌리를 둔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가장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권위 중심에서 협조 중심으로 변모해가는 가정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지적, 앞으로도 이런 모습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순 기자〉

따로별이 부부들이 늘고 있다. 각자의 수입은 각자가 알아서 관리한다는 개념의 따로별이는 함께 벌어 함께 쓴다는 맞벌이와는 차이가 있다.

29세에서 39세의 여성 1천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따로별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12.5%를 점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자가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재산분리 시스템을 선호하는 부류다.

수입은 각자 관리, 생활비만 공동부담

지난 5월에 결혼한 김진아(26.도봉구 쌍문동) 씨도 따로별이 부부에 해당한다.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는 김 씨는 친정 어머니 회갑 선물로 해외일주여행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매달 30만원씩 붓고 있는 통장 하나와 집을 마련하기 위한 청약저축통장(명목상 남편 통장이지만 저축액은 공동으로 부담해서 낸다. 집을 살 경우에는 저축 불입액수에 따라 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둘다 단 한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다), 목돈마련저축 등 세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다.

김 씨의 남편도 통장을 가지고 있다. 그는 현재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

는 중이다. 아내 김 씨의 도움을 받으면 당장이라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지만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가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뭇다 한 공부를 더하고 싶다’는 단순한 학구열에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해서도 청할 수도 없다고 한다.

생활비는 각자가 35만원씩 내놓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어 생활비가 더 들 경우에는 분담해서 내놓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가게부도 일주일 간격으로 돌려가며 쓴다. 서로 물가나 생활경제를 알아야 하고 그때 그때 의견 충돌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게부 돌려쓰기를 택한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살을 섞고 사는 부부가 어떻게 그런 계산법으로 살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부부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 전에 합의했고 우리 생각이 전혀 그르지 않았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확인했다”고 김 씨의 남편은 말한다.

이들은 결혼 예물도 서로 ‘해줄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해 그 선에 맞추어 했다고 한다. 또 남편이 전세금 1천만 원을 마련한 대신 김 씨는 그에 상응하는 살림살이를 마련했고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초과한 살림살이 마련 비용은 서로 각자가 부담해서 샀다고